

# Dubai유, 25.73달러로 상승 지속

석유공사, 미국 정유소 화재로 휘발유 가격 상승 ... WTI는 31.66달러

휘발유 가격 상승에 따라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이어갔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6월10일 현지에서 거래된 중동산 Dubai유 현물가격은 배럴당 25.73달러로 전날보다 0.05달러 올랐다.

서부텍사스중질유(WTI) 가격도 전날보다 0.29달러 오른 31.66달러에 거래됐고, 북해산 Brent유는 27.97달러로 0.15달러 내렸다.

석유공사는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11일 총회에서 생산쿼터를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국제유가가 장 초반에는 하락세를 보였으나 후반 들어 미국 루이지애나 정유소 화재에 따른 휘발유 가격의 상승 영향으로 오름세로 돌아섰다고 분석했다.

<Chemical Journal 2003/06/12>